

투데이 칼럼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 새 안녕하십니까?의 유래는 고려 말 무신정권시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무신(武臣)들의 눈에 벗어 나면 밤마다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던 풍경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 시절의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십니까?'였다. 그 풍습이 유래되어 지금까지 안부인사로 쓰이고 있다. 안녕(安寧)은 편안함 또는 편한 사이의 인사를 가리킨다. 편안해야 할 '안녕'이 '불편'의 느낌을 주게 되면 '불안'해진다. 정치(政治)는 국권을 안녕(安寧)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안녕(安寧)하기 위하여 정치(政治)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는 국민을 '불안(不安)'하게 만드는 불편한 정치를 보였다. 바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이다. 테러방지법의 전체 이름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말(言) 그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눈에 보이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박 9일간 펼쳐진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트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을)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이 필리버스터는 1964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의원시절에 동료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동안 발언한 이후 52

년만의 부활이다. 이번의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을 쏟아내었다. 38명의 야당의원이 쉬지 않고 192시간 25분 동안 열변을 토해냈다. 바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이다.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테러방지법으로 주인에게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 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했으며, 신정민 의원은 "국정원은 국가적정원이고 국가조작원이다.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집단으로 남아있다"라며 한방을 날렸으며, 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의식은 결코 썩멸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안녕' 때문이다.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테러방지법의 쟁점이었던 국정

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예방에 필요 찬성' 39%, '일반인 사찰 우려 반대' 51%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은 합법적으로 전 국민 모두를 정부의 사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당단체, 나아가 각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들을 영장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즉 영장없이 금융 정보, 이메일, 카톡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사이며 테러로 규정하면 모든 사생활을 고소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잘 알고 있다. 권력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그 아무도 없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을 주도했던 세력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때의 인사말이었던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우리 시대의 아침 인사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무덤하게 '밤새 안녕'하기를 기원해본다.



김 갑 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독자제언

가정폭력,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정부는 가정폭력을 '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합방지정책을 세워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교육활동 등을 통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해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의 지체없는 현장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전담 경찰관 신설과 열정 대응으로 검거건수·피해자보호조치는 증가했고,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였지만 발생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장차 문제인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

거나 철회하라는 이유를 들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해 무작정 감추려고만 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은 단란하고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피해자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무조건 은폐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찰의 112범죄신고센터나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즉시 도움을 요청, 피해자 자신도 보호받고 행위자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개별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이 악순환 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 현 덕진경찰서 여성수사팀 경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안전벨트착용 습관을 갖자

현대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서서히 차에 동승한 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가족끼리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의 귀가시간에 차 안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의 애로사항을 묻기도 하고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 차안에서 가족끼리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전 중 탑승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합니다. 탑승자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기분을 생각하며 전화로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탑승자에 대한 가장 큰 배려를 잊어버린건 아닐까요?, 차 안에서 운전 중에 탑승자의 기분보다 그 사람의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한 해 전체 가구의 약 8%에 해당하는 137만 가구가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8%라면 어떠한 안전사고보다 높은 확률이며,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의 사망률이 착용 때 사망률보다 3배 이상 높음에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재 22%에 불과하다. 착용률이 9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차를 타는 탑승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합니다. 운전자는 탑승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에 타면 '저는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위급한 순간에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활나에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을게 없어, 당신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낮 뜨거운 말보다 '찰칵' 소리를 기다렸다가 출발하거나 직접 채우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유형주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 순경

사설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 확보해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때이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 날 여러 번 했던 바이다. 그런데 아직 인식변화가 뚜렷하지가 않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기에 그럴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그저 기대만으로 그치고 있으니 많이 아쉬운 일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그보다 절실한 것은 소비처 확보이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호소하고 있거나, 도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정보 공유는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같은 주문을 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신용본위를 바탕으로 견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전복의 농산물은 우수함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친환경 농산물은 더 우수한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농협이 올해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구현 하겠다며 2016년 업무보고회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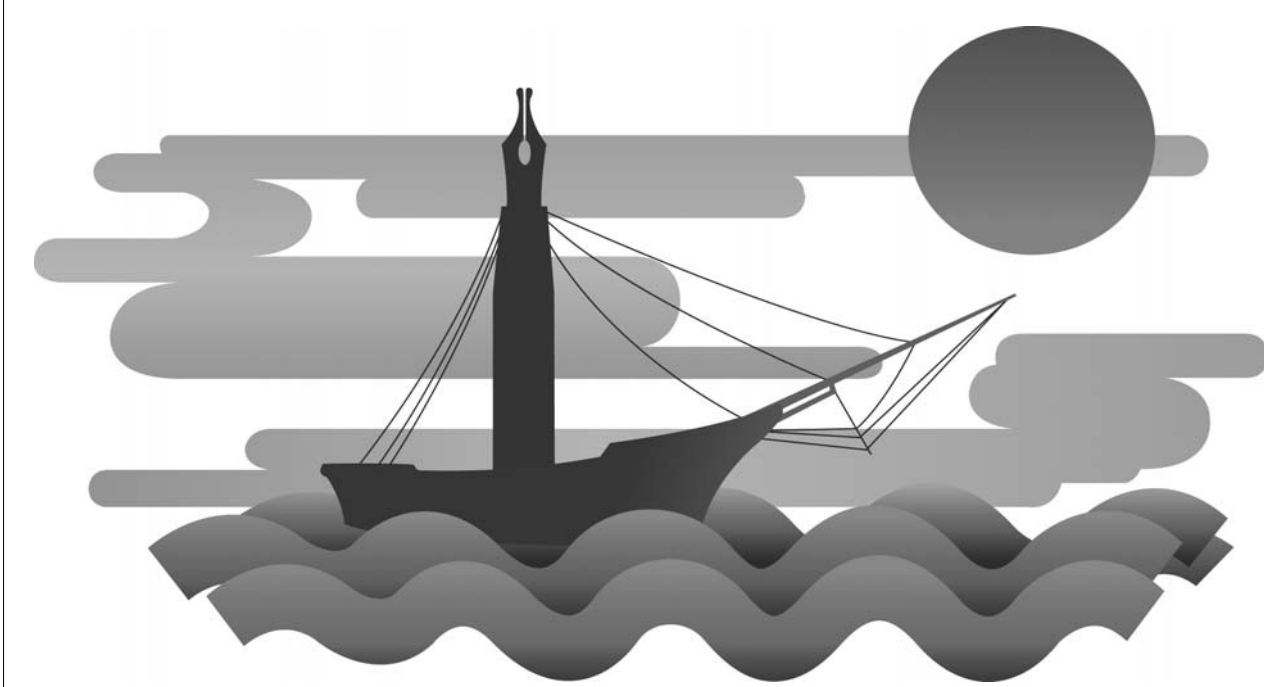
졌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잘 팔아 주는 것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도내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대형 마트들의 협조도 소망스럽다. 나름의 판매 전략이 있겠지만 지역 농민의 바람을 외면하면서까지 과거의 판매 방식을 고집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이름에 기대 이익을 보기에 급급했던 일부 업체들이다.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라도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 친환경 농산물이 돌고 있다는 고발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당국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친환경 농산물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곤란하니까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활발해야겠다. 이 같은 주문은 우선은 생산 농가들을 돕자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다.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독려하려면 소비 문화 또한 활기를 보여야 한다. 전북도와 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를 확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청년 실업 대책 세우야

도내 청년 실업이 비상이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곤란하다.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라는 보고이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내년과 내평년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취업률이 더욱 좁아지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므로 어떻게하면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동안 본보는 거듭 거듭 말한 게 있다. 취업률이 형편없는데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게 그것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곤란하다. 청년고용 분위기 조성에 다들 협조해야겠다.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 일 때만 그러는 척 할 게 아니다. 일상적으로 그래야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도 없고 경제 성장도 없는 오늘날 전북도는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다. 우리 지역의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말은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거의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의 고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록이 있으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북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간의 고용이 보장되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일자리 마련과 관련해 전북도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이상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므로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고용 현실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이마를 짚고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 청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대 규모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기업들을 독려해 청년들의 취직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